

영재들은 행복한가?: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의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 비교

한 기 순

김 영 미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본 연구는 영재들의 행복에 관한 연구로 영재(201명), 잠재적 영재(124명), 일반 학생들(241명)의 행복지수,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 학교교육 행복지수를 분석하고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학생들의 배경변인이 행복 지수 및 관련 정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영재와 잠재적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하여 행복지수,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 교육 행복지수 등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복관련 정서적특성에 나타난 성차를 살펴보면 선발된 영재집단의 경우 여학생들이, 잠재적 영재집단의 경우 남학생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존재했다.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으로는 행복지수,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교육 행복지수 전반에 걸쳐 또래관계와 가정행복감이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주제어: 영재, 잠재적 영재, 행복, 행복지수,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교육 행복지수

I. 서 론

영재아동들은 과연 ‘행복’한가? 본 연구는 이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들어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 화두로 대두되면서 행복이 주요

교신저자: 한기순(han@incheon.ac.kr)

* 이 연구는 2007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긍정심리학은 1998년 미국 심리학회(APA)에서 Seligman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지난 한 세기 동안 정신의학자들이 Sigmund Freud 등의 영향으로 마음의 부정적인 면, 병리적인 측면에 집착하여 왔던 것에 반성하고 마음의 밝은 면을 규명해서 복돋우려는 심리학의 새 분야로 행복이라는 마음의 상태 즉 심리적 안녕감, 행복, 만족 등 긍정적인 경험을 조명하였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행복은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다. 인간의 삶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시도하였고, 따라서 행복에 미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행복한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며 세상을 좀 더 안전하게 느끼며 좀 더 쉽게 결정을 내리고 훨씬 친화적이며 타인과의 관계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훨씬 긍정적이다. Martin E. P. Seligman(1991)은 그의 저서 ‘낙관성 훈련(Learned Optimistic)’에서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난관도 이겨 내고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이런 행복지수는 계발과 훈련에 따라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영재교육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도 영재 개개인의 행복 및 심리적 안녕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낙관적이고 행복지수가 높아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을 제시하며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행복한 영재이어야 한다. 그동안 영재교육에서 학문적 성취에 준거를 둬으로서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그들이 얻고자 하는 행복은 쾌락적 개념으로 치부되어 철저히 배제되어오거나 관심 밖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일반아들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재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행복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영재들의 심리상태, 학교 적응력, 스트레스 수준 및 기타 사회-정서적인 특성 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시

되고 있다. 일반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영재들은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이기 쉽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윤여홍, 1996, 2000; 윤재은, 1994; Getzels & Jackson, 1962; Webb, 1993). 영재아들은 또한 매우 민감하고 높은 수준의 열망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결과도 있다(Webb, Meckstroth & Tolan, 1982).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과학영재 집단이 일반 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과학영재 학생은 완벽주의 성향이 더 높으며 이는 이들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하종덕, 송경애, 2004). 임형철(1992)은 영재아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분석에서 영재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영재는 영재교육을 받지 않는 영재들에 비해 학교 적응이 뛰어나며 영재교육을 받지 않는 영재는 평재보다 학교 적응을 더 잘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Moon(1991)은 영재아들은 가족, 교사, 미래 등에서 일반아 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영재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연구하고 있으며, 영재들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행복지수,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행복지수 등 행복감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선발된 영재들과 영재적 잠재성은 있으나 영재로 선발되지 못한 아동들 그리고 일반아동들에 대한 행복감 및 행복과 관련한 심리적 측면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특히 선발된 영재들과 잠재적 영재 가능성이 있으나 선발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행복관련 특성을 비교하는 것은 잠재적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이 영재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이 아동들이 인지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전의 연구결과(Silverman, 1993)들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어떻게 다른지, 남학생과 여학생은 영재선발 여부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밝혀진 바 없으며, 영재아동의 행복과 관련한 다양한 배경변인을 탐색한 연구도 부재하다. 현재의 영재교육이 지적인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영재들의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의 탐색은 보다 행복한 영재와 영재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들은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 2)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들의 행복을 설명하는 배경변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 201명을 영재집단으로, 같은 지역 관내에서 영재로 선발되지는 못하였으나 학업성취도 상위 5%이내이고 교사추천에 의해 잠재적 영재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된 학생 124명을 잠재적 영재집단으로, 그리고 일반학급에 편성되어 어떠한 영재교육이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 수준의 기본적인 학업성취수준을 보이는 학생 241명을 일반집단으로 하여 행복 관련 정서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나. 검사도구

1) 옥스퍼드행복검사 설문지(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

HILL와 Argle에 의해 4지선다 20문항으로 개발되었던 The Oxford Happiness Inventory(OHQ)척도를 6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한 29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행복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정서에 대한 빈도와 정도, 높은 삶의 만족도 정도,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 느낌의 부재에 의존한다는 논쟁(Argle & Crossland, 1987)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Beck의 우울척도(BDI)를 거꾸로 묻는 21문항과 다른 주관적 안녕의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을 11가지 추가하여 만들었다. 이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90, 7주 후 재검사 신뢰도는 .78이며, 공인 타당도는 .43으로 보고되고 있다(Argle, Martin, & Crossland, 1989).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적신뢰도는 .89로 보고되었다.

2) 낙관성 검사(Scheier, Carver와 Bridges, 1994)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의 생활지향검사 개정판(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을 조하나(200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LOT-R은 기질적 낙관성을 측정하고, 기질적 낙관성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편적인 기대감을 의미한다. LOT-R은 기질적 낙관성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3개 문항은 긍정적 진술문항(1, 4, 10)이며, 3개 문항은 부정적 진술 문항(3, 7, 9)이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문항(2, 5, 6, 8)은 참여자가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끼워 넣은 문항(filler items)이며 채점에서 제외되었다. 본 검사에 사용된 LOT-R의 Cronbach의 α 계수는 .73이다.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등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6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6)’의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원척도는 54문항인데 김명소 등(2001)이 요인 부하량 등을 기준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해 총 4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저 46점에서 최고 276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자아수용의 Cronbach's α 가 .76, 긍정적 대인관계 .66, 삶의 목적 .73, 개인적 성장 .70이며, 전체 신뢰도는 .71이었다.

4) 학교교육 행복감 검사

서정화와 김종백(2007)이 개발한 학교교육 행복감 검사는 5단계 리커트(Likert) 척도의 전체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학교생활적응력 8문항, 교사 및 학습활동기대 11문항, 자기효능감 5문항, 자기통제력 4문항, 교우관계 7문항, 학교시설 만족도 3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학교생활 적응력의 Cronbach's α 가 .90, 교사 및 학습활동기대 .88, 자기효능감 .93, 자기통제력 .92, 교우관계 .90, 학교시설 만족도 .89이며, 38문항 전체의 Cronbach의 α 계수는 .90이었다.

다.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 간의 행복지수,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교육 행복지수 등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é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의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배경변인의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가. 영재아는 더 행복한가?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들은 행복지수,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교육 행복지수 등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에 따른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의 기술통계치와 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가 다음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 간의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의 차이

구 분	영재 (a)		잠재적 영재 (b)		일반학생 (c)		F	Scheffé test	
	M	(SD)	M	(SD)	M	(SD)			
행복지수	4.06	(.73)	4.11	(.62)	3.72	(.64)	19.74***	a>c, b>c	
낙 관 성	2.65	(.73)	2.77	(.64)	2.28	(.66)	26.60***	a>c, b>c	
심리적 안녕감	자이수용	4.01	(.85)	3.97	(.80)	3.50	(.70)	27.84***	a>c, b>c
	긍정적 대인관계	4.33	(.99)	4.42	(.87)	3.94	(.78)	16.25***	a>c, b>c
	삶의 목적	4.25	(.91)	4.33	(.90)	3.71	(.78)	30.61***	a>c, b>c
	환경 지배력	3.92	(.77)	3.92	(.69)	3.53	(.62)	22.64***	a>c, b>c
	자율성	3.98	(.70)	3.88	(.79)	3.60	(.64)	17.60***	a>c, b>c
	개인적 성장	4.32	(.80)	4.40	(.68)	3.82	(.65)	38.38***	a>c, b>c
	전 체	4.13	(.65)	4.14	(.60)	3.68	(.48)	43.91***	a>c, b>c
학교 교육 행복 지수	학교생활적응력	3.56	(.73)	3.39	(.57)	3.00	(.59)	44.19***	a>c
	교사 및 학습활동기대	3.23	(.86)	3.14	(.70)	2.85	(.72)	14.68***	a>c, b>c
	자기효능감	3.56	(.74)	3.38	(.62)	3.05	(.61)	33.13***	a>c
	자기통제력	4.81	(1.01)	4.94	(.90)	4.22	(.98)	30.26***	a>c, b>c
	학교시설 만족도	3.03	(1.00)	2.87	(.90)	2.76	(.85)	4.69*	a>c
	교우관계	3.85	(.78)	4.03	(.60)	3.56	(.64)	21.06***	a>c, b>c
	전 체	3.48	(.64)	3.42	(.47)	3.07	(.43)	40.05***	a>c, b>c

* $p<.05$, *** $p<.001$

분석결과 행복지수,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교육 행복지수 등 모든 행복관련 변인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행복지수의 경우 영재학생($M=4.06$)과 잠재적 영재학생($M=4.11$)이 일반학생($M=3.72$)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성에서도 영재학생과 잠재적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영재집단과 잠재적 영재집단 간에는 조사된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심리적 안녕감은 전체적으로는 영재학생($M=4.13$)과 잠재적 영재학생

($M=4.14$)이 일반학생($M=3.68$)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별로도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환경지배력, 자율성, 개인적 성장 등 모든 하위 영역에서 영재 학생과 잠재적 영재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행복지수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영재학생($M=3.48$)과 잠재적 영재학생($M=3.42$)이 일반학생($M=3.0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학교생활적응력, 자기 효능감, 학교시설 만족도 등의 영역에서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잠재적영재들과 일반학생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교사 및 학습활동기대, 자기통제, 그리고 교우관계에서는 영재학생과 잠재적영재학생모두가 일반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생활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영재학생과 잠재적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하여 행복지수,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교육 행복지수 등 모든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학교교육 행복과 관련하여서는 영재학생이 두 집단과 비교하여 더욱 더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선발된 영재학생과 잠재적 영재학생 간에는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 전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성적을 중시하는 교실풍토에서 성적이 좋고 교사의 인정을 받는 잠재적 영재학생들이 선발된 영재들과 비교하여 우려와 달리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적위주로 추천되고 선발된 현행 영재선발로는 영재집단과 잠재적영재집단의 구분이 다소 모호할 수 있음 역시 시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덧붙여,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행복지수와 낙관성 등에서 잠재적 영재의 평균이 오히려 선발된 영재들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나거나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Marsh와 Hau(2004)의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선발된 영재아동들의 경우 우수한 아동끼리의 상대적 비교 및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영재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심리상태를 보이거나 낮아진 자아개념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나. 행복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성별에 따른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의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과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집단간 행복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고, 이원 변량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과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 학생의 행복지수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러나 이런 차이는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남학 생의 경우 잠재적 영재학생(M=4.22)이 영재학생(M=4.00)에 비해 행복지수 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영재학생(M=4.21)이 잠재적 영재학생(3.94) 에 비해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학생의 행복지수는 남녀 모두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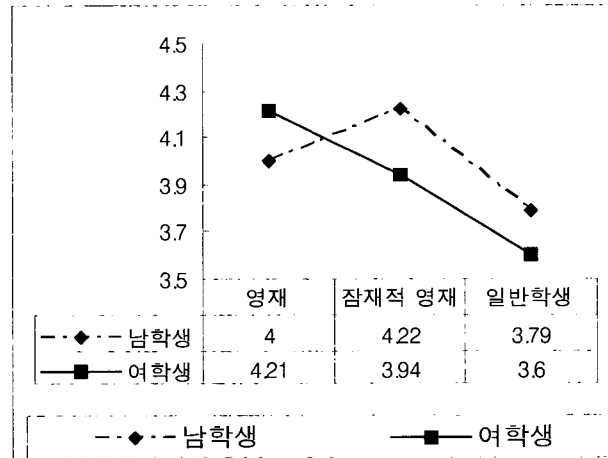
<표 2>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행복 관련 정서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행복지수	4.00(.74)	4.21(.76)	4.22(.29)	3.94(.63)	3.79(.65)	3.60(.59)	
낙 관 성	2.57(.73)	2.76(.74)	2.86(.60)	2.67(.69)	2.41(.62)	2.20(.70)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3.91(.84)	4.25(.85)	4.20(.70)	3.67(.85)	3.62(.67)	3.32(.74)
	긍정적 대인관계	4.28(.98)	4.49(1.02)	4.64(.77)	4.12(.93)	3.88(.78)	3.97(.79)
	삶의 목적	4.10(.91)	4.52(.87)	4.42(.92)	4.22(.88)	3.75(.82)	3.71(.73)
	환경 지배력	3.84(.80)	4.07(.69)	4.06(.65)	3.74(.73)	3.55(.64)	3.49(.59)
	자율성	3.95(.71)	4.05(.73)	3.95(.81)	3.81(.77)	3.58(.65)	3.57(.63)
	개인적 성장	4.19(.80)	4.59(.75)	4.53(.73)	4.25(.59)	3.79(.68)	3.85(.64)
	전 체	4.04(.65)	4.32(.62)	4.29(.57)	3.96(.59)	3.69(.51)	3.65(.49)
학교 교육 행복 지수	학교생활적응력	3.48(.74)	3.77(.69)	3.47(.57)	3.30(.57)	3.08(.59)	2.88(.57)
	교사 및 학습활동기대	3.18(.89)	3.39(.77)	3.27(.73)	2.96(.62)	2.93(.68)	2.72(.68)
	자기효능감	3.51(.76)	3.71(.65)	3.41(.65)	3.32(.59)	3.06(.56)	3.02(.58)
	자기통제력	4.73(1.04)	5.02(.93)	5.11(.87)	4.67(.88)	4.22(1.00)	4.26(.89)
	학교시설 만족도	2.98(1.02)	3.11(.97)	2.85(.94)	2.87(.84)	2.83(.84)	2.66(.81)
	교우관계	3.76(.82)	4.03(.68)	4.05(.63)	4.00(.55)	3.52(.61)	3.67(.65)
전 체	3.42(.66)	3.65(.58)	3.50(.51)	3.32(.41)	3.10(.40)	3.01(.44)	

<표 3>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행복지수의 이원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83	1	.83	1.85
집단	19.25	2	9.63	21.58***
성별 * 집단	5.36	2	2.68	6.01**
오차	226.02	507	.45	
합계	8190.23	513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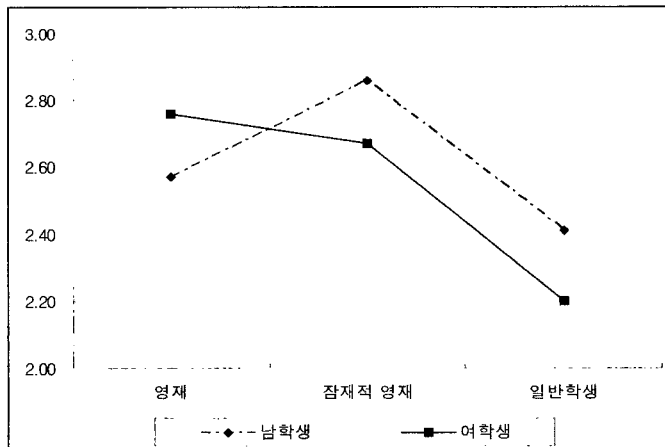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집단별 행복지수

낙관성과 관련하여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4>, [그림 2] 참조). 성별과 집단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잠재적 영재가 영재학생($M=2.57$)보다 그리고 여학생은 영재학생이 잠재적 영재 학생에 비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학생의 낙관성은 남녀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집단 간 낙관성의 이원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59	1	.59	1.27
집단	19.87	2	9.93	21.22***
성별 * 집단	4.20	2	2.10	4.49*
오차	237.28	507	.47	
합계	3570.83	513		

* $p < .05$, *** $p < .001$



[그림 2] 성별에 따른 집단별 낙관성

흥미롭게도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교육 행복지수에서도 성별과 집단간에 유사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자율성 영역을 제외하고,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환경지배력, 개인적 성장 등의 영역에서 성별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그림 3] 참조). 전반적으로 이들 하위영역에 걸쳐 남학생의 경우 잠재적 영재 학생이, 여학생은 영재학생이 더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였으며 일반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가장 낮은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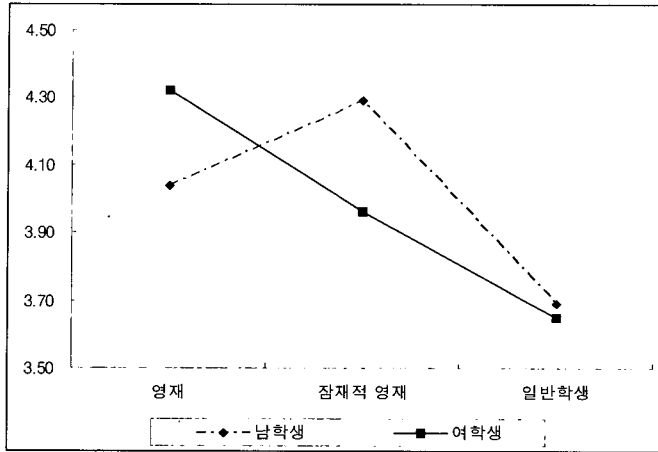
적 안녕감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교육 행복지수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그림 4]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영재아 중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모든 변인에서 더 잘 적응하며(임형철, 1992) 영재교육에서의 만족도가 남자아동보다 여자아동이 더 높다고 지적한 기존연구(한기순, 2007)와 유사한 것으로 여학생 영재가 영재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행복감 역시 남학생 영재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들에 비해 주말에 이루어지는 영재교육 수업으로 인해 교우관계나 취미활동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침해를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기순, 2006).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의(Silverman, 1993) 우려와 달리 여자 영재아동들이 영재라는 라벨에서 더 적응적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 남자 영재학생들의 경우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영재라는 라벨을 더 의식적으로 혹은 부담스럽게 인식하는가 등 발달단계, 성별, 영재여부 및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이러한 연구결과에 보다 의미 있는 제언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하버드대학의 Kindlon(2007)이 [새로운 여자의 탄생-Alpha Girl]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업과 운동, 리더십 등의 모든 면에서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엘리트 소녀들, 즉 여자라는 사실에 아무 제약도 느끼지 않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변화 시킬 잠재력과 미래의 지도자가 될 능력이 있는 우수한 여자아동’들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여자아동들이 영재교육의 선발 대상에서 남·녀의 편견 없이 추천되고 선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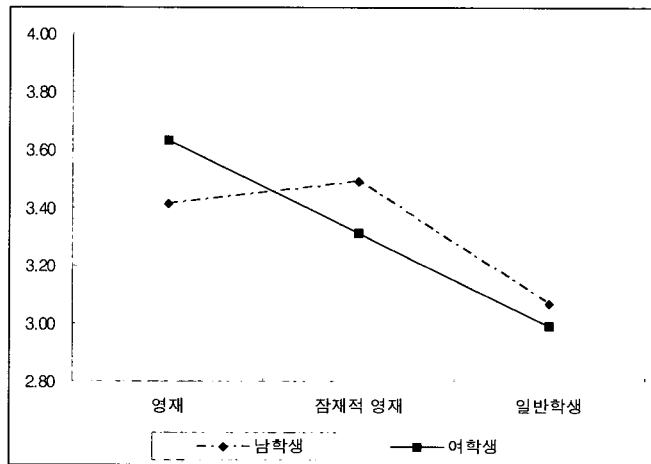
<표 5>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심리적 안녕감의 다변량 분석결과

변량원	종속변수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자아수용	3.16	1	3.16	5.32
	긍정적 대인관계	.63	1	.63	.81
	삶의 목적	.38	1	.38	.55
	환경 지배력	.29	1	.29	.62
	자율성	.03	1	.03	.07
	개인적 성장	.35	1	.35	.69
	전 체	.13	1	.13	.39
집단	자아수용	36.75	2	18.38	30.90***
	긍정적 대인관계	24.26	2	12.13	15.67***
	삶의 목적	39.96	2	19.98	27.51***
	환경 지배력	19.88	2	9.94	20.81***
	자율성	17.37	2	8.68	17.40***
	개인적 성장	37.85	2	18.92	37.29***
	전 체	28.18	2	14.09	42.69***
성별 * 집단	자아수용	15.47	2	7.74	13.01***
	긍정적 대인관계	10.32	2	5.16	6.67**
	삶의 목적	7.94	2	3.97	5.47**
	환경 지배력	5.38	2	2.68	5.63**
	자율성	1.08	2	.54	1.08
	개인적 성장	8.26	2	4.13	8.14**
	전 체	6.73	2	3.37	10.20***
오차	자아수용	301.46	507	.59	
	긍정적 대인관계	392.57	507	.77	
	삶의 목적	368.14	507	.73	
	환경 지배력	242.23	507	.48	
	자율성	253.04	507	.49	
	개인적 성장	257.26	507	.51	
	전 체	167.33	507	.33	
합계	자아수용	7756.14	513		
	긍정적 대인관계	9466.92	513		
	삶의 목적	8878.59	513		
	환경 지배력	7530.61	513		
	자율성	7682.79	513		
	개인적 성장	9116.29	513		
	전 체	8220.87	513		

** $p < .01$, *** $p < .001$



<그림 3> 성별에 따른 집단별 심리적 안녕감



<그림 4> 성별에 따른 집단별 학교교육 행복지수

<표 6>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학교교육 행복지수의 다변량 분석결과

변량원	종속변수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학교생활적응력	.07	1	.07	.18
	교사 및 학습활동기대	1.20	1	1.20	2.12
	자기효능감	.076	1	.08	.18
	자기통제력	.13	1	.13	.15
	학교시설 만족도	.004	1	.004	.004
	교우관계	1.72	1	1.72	3.68
	전 체	.02	1	.02	.04
집단	학교생활적응력	39.15	2	19.57	48.13***
	교사 및 학습활동기대	19.62	2	9.81	17.28***
	자기효능감	29.76	2	14.88	35.74***
	자기통제력	48.87	2	24.44	26.89***
	학교시설 만족도	8.38	2	4.19	5.01**
	교우관계	16.16	2	8.08	17.32***
	전 체	22.08	2	11.04	42.41***
성 * 집단	학교생활적응력	6.17	2	3.09	7.59***
	교사 및 학습활동기대	6.14	2	3.07	5.41**
	자기효능감	1.93	2	.97	2.32
	자기통제력	9.32	2	4.66	5.13**
	학교시설 만족도	2.18	2	1.09	1.30
	교우관계	1.80	2	.90	1.93
	전 체	3.63	2	1.82	6.69**
오차	학교생활적응력	206.18	507	.48	
	교사 및 학습활동기대	287.71	507	.57	
	자기효능감	211.07	507	.42	
	자기통제력	460.77	507	.91	
	학교시설 만족도	424.28	507	.84	
	교우관계	236.55	507	.47	
	전 체	137.60	507	.27	
합계	학교생활적응력	5844.78	513		
	교사 및 학습활동기대	5119.39	513		
	자기효능감	5893.28	513		
	자기통제력	11459.44	513		
	학교시설 만족도	4686.33	513		
	교우관계	7617.10	513		
	전 체	5774.78	513		

** $p < .01$, *** $p < .001$

다.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들의 행복을 설명하는 배경변인은 무엇인가? 학업성취, 사교육시간,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또래친밀도, 교사친밀도, 가정행복감 및 부모의 교육수준 정도 등 학생의 여러 배경변인이 행복지수 등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별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배경변인들의 행복지수에 대한 분산의 설명력은 영재집단이 44%, 잠재적 영재집단이 52%, 일반집단이 47%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분석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또래친밀도와 가정행복감 변인이 행복지수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영재의 경우 가정행복감($\beta=.35$)이 또래친밀도($\beta=.31$)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잠재적 영재 및 일반학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가정행복감과 또래친밀도가 영재성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들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 그중에서도 가정행복감은 영재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들의 행복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학생의 경우는 이 두 변인과 함께 사교육시간과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아이들의 행복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일반학생들이 영재나 잠재적 영재들에 비해 행복을 설명함에 있어 사교육의존도가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영재, 잠재적영재, 일반학생들의 배경변인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영재		잠재적영재		일반	
	β	t	β	t	β	t
(상수)		2.32		2.02		4.21
사교육시간	-.05	-.95	-.02	-.24	.13	2.00*
학업성취도	.11	1.97	.12	1.58	-.03	-.38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03	-.44	-.03	-.36	.18	2.62*
가족친밀도	.08	1.03	.026	.25	.03	.29
또래친밀도	.31	4.90***	.29	3.42**	.32	4.53***
교사친밀도	.08	1.27	.13	1.51	.07	1.08
가정행복감	.35	4.43***	.50	6.01***	.38	4.76***
부교육수준	.02	.31	-.07	-.73	.07	.74
모교육수준	.01	.20	.06	.63	-.11	-1.20
R ²	.44		.52		.47	
Adj R ²	.41		.48		.44	
F	15.90***		12.45***		15.08***	

* $p<.05$, ** $p<.01$, *** $p<.001$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들의 배경변인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석되었다(<표 8> 참조). 분석결과 배경변인들의 낙관성에 대한 분산의 설명력은 영재가 25% , 잠재적 영재가 26%, 일반학생이 27%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회귀분석결과 영재학생들의 배경변인 중 학업성취도($p < .01$), 또래친밀도($p < .01$), 가정행복감($p < .001$)이 낙관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정행복감($\beta = .39$)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학업성취도($\beta = .17$), 또래친밀도($\beta =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잠재적영재의 경우 교사친밀도와 가정행복감이 낙관성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일반학생에서는 가정행복감, 또래친밀도, 사교육시간 순으로 낙관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일반학생의 경우 사교육시간이 행복지수나 낙관적사고와 더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매우 의외로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학생들이 사교육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을 위해 보내는 반면, 일반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학업의 보충과 함께 친구와의 교류나 취미나 특기의 계발과 탐색 등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원이나 과외 등에서의 사교육 교사를 통해 더 많은 개인적 관심과 지도를 받는 것에 영재나 성적이 우수한 잠재적 영재들에 비해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표 8> 영재, 잠재적영재, 일반학생들의 배경변인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영재		잠재적영재		일반	
	β	t	β	t	β	t
(상수)		.81		1.99		.73
사교육시간	-.05	-.80	.05	.53	.16	2.13**
학업성취도	.17	2.53**	.07	.76	.11	1.34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01	-.11	-.18	-.69	-.07	-.79
가족친밀도	-.05	-.51	.16	1.28	-.21	-1.97
또래친밀도	.16	2.12**	.12	1.07	.21	2.52**
교사친밀도	.05	.62	.27	2.54**	.19	1.60
가정행복감	.39	4.27***	.22	2.12**	.46	4.92***
부교육수준	.02	.19	-.06	-.53	.01	.12
모교육수준	-.02	-3.02	-.06	-.51	.01	.06
R ²	.25		.26		.27	
Adj R ²	.22		.19		.23	
F	6.88***		3.95***		6.33***	

** $p < .01$, *** $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는데(<표 9> 참조), 분석결과 배경변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분산의 설명력은 영재가 38%, 잠재적 영재가 43%, 일반학생이 31%로 나타났다($p<.001$). 회귀분석결과 배경변인 중 또래친밀도와 가정행복감 변인이 소속 집단에 상관없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행복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 더하여 흥미롭게도 영재집단에서만 학업성취도가 낙관성이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선행연구(임미향, 박영신, 2007)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학업성취도는 여전히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요인임을 함의하는 동시에 영재집단이 일반이나 잠재적 영재집단에 비해 정서적 안정이나 행복에 있어 학업성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들의 배경변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영재		잠재적영재		일반	
	β	<i>t</i>	β	<i>t</i>	β	<i>t</i>
(상수)		3.39		2.52		8.50
사교육시간	-.06	-.95	.07	.92	.05	.65
학업성취도	.18	2.93**	.15	1.78	.09	1.13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01	.22	-.11	-1.15	.01	.18
가족친밀도	.06	.70	.01	.10	-.06	-.59
또래친밀도	.24	3.56***	.34	3.63***	.29	3.62***
교사친밀도	.11	1.45	.18	1.91	.13	1.79
가정행복감	.31	3.79***	.36	3.90***	.35	3.86***
부교육수준	.07	.93	.02	.22	.01	.11
모교육수준	-.01	-1.3	.01	.09	-.09	-.94
R^2	.38		.43		.31	
Adj R^2	.35		.38		.27	
<i>F</i>	15.51***		8.57***		7.64***	

** $p<.01$, *** $p<.001$

끝으로 영재학생들의 배경변인이 학교교육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표 10> 참조). 분석결과 배경변인이 학교교육 행복지수에 대한 분산의 설명력은 영재 43%, 잠재영재 46%, 일반학생 38%로 나타났다($p < .001$). 회귀분석결과 학교교육 행복지수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는 세 집단 모두에서 교사친밀도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행복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밖에 또래 친밀도와 가정행복감이 영재성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행복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지적되었다. 학교교육 행복지수를 설명함에 있어 학업성취도보다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등이 더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는 현장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

흥미롭게도 또래친밀감과 가정행복감은 영재들의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잠재적 영재 및 일반학생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인 중학생 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있어 영재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또래관계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느끼는 가정의 행복 여부 및 정도가 이들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원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영재집단의 경우 사교육시간은 행복지수,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교육 행복지수 등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 전반에 걸쳐 부(-)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교육시간이 길수록 아동들이 덜 행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교육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같은 결과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일반집단에서는 사교육시간이 행복지수나 낙관성과 관련하여 유의한 설명력이 있었던 것과 다른 행복관련 변인 전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정(+)의 영향력을 보였던 것과 매우 상치되는 결과로 영재집단과 일반집단 아동들이 사교육에 부여하는 의미나 사교육을 통해 경험하는 문화나 현실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표 10> 영재학생들의 배경변인이 학교교육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영재		잠재적영재		일반	
	β	t	β	t	β	t
(상수)		3.68		5.75		9.02
사교육시간	-.04	-.65	-.06	-.71	.11	1.56
학업성취도	-.06	-1.07	-.04	-.44	.01	.16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05	.72	-.04	-.48	-.11	-1.47
가족친밀도	.12	1.44	-.01	-.07	-.13	-1.33
또래친밀도	.18	2.71**	.29	3.24**	.21	2.56***
교사친밀도	.35	5.39***	.47	5.23***	.43	6.39***
가정행복감	.23	2.93**	.17	1.92*	.29	3.48**
부교육수준	.08	1.11	-.12	-1.22	.03	.27
모교육수준	-.08	-1.13	.02	.19	-.11	-1.09
R ²	.43		.46		.38	
Adj R ²	.40		.41		.34	
F	8.57***		9.79***		10.42***	

* $p < .05$, ** $p < .01$, *** $p < .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재, 잠재적 영재와 일반학생의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영재 학생의 행복지수,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교육행복 지수가 일반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을 시사했다. 이는 영재반 학생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사료된다. 선발된 영재와 잠재적 영재간에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 전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학업성취위주로 추천되고 선발된 영재들과 학업성취가 우수한 잠재적 영재들간에서 학업성취가 이들 학생들의 행복을 설명하는 주요변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행 학업성취 위주의 영재선발로는 진정한 영재와 학업성취 우수아가 구분되기 어려움을 함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행복지수, 낙관성 등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 일부영역에서 잠재적 영재들이 영재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더 높은 행복감을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한데 영재아들이 우수한 아동들만의 그룹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때 영재학생들에게 지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다양한 심리상태를 상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선발된 영재집단의 경우 남학생의 행복감이 여학생에 비해 일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남학생들의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및 행복감 등을 이해, 증진시키는 사회-정서적 영역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 전반에 걸쳐 가정행복감과 또래관계가 영재성 여부와 상관없이 행복을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변인들로 도출되었다. 영재이기에 앞서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인 만큼 또래 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관심과 원만한 또래관계를 이해시키고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향후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사료된다. 가정에서의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때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및 교육에 관한 부모교육도 필요하다. 더불어 영재들의 경우 정서적 안정 및 행복을 추구하는 요인이 일반아동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영재들의 심리적 안정 및 행복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도 향후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보여진다.

끝으로 이 연구는 영재들의 성취, 성공과 함께 ‘행복’이 궁극적으로 영재아를 이해하고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준거가 될 수 있음을 함의하고자 하였다.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잘’ 사는 데서 오는 안녕감이나 행복이 아닌 ‘남과 더불어’ 함께 살며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하는 교육과 가치관의 조성이 인지적인 교육과 함께 더불어 강조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경험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77-100.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19-39.

- 서정화, 송경현, 김종백, 권순환, 배영직, 김태은 (2007). 학교교육 행복지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연구팀.
- 윤여홍 (1996). 영재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관한 임상연구: 정신건강을 위한 지도. *영재교육연구*, 6, 53-71.
- 윤여홍 (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 일반*, 19, 79-101.
- 윤재은 (1994). 영재집단의 학교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및 그 대처 방법: 특수목적고교와 인문고교의 비교.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향, 박영신 (2007).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 중학생을 중심으로. 2007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임형철 (1992). 영재아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조하나 (2003). 낙관성 수준에 따른 우호/적대상황에서의 대인관계도식 차이.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종덕, 송경애 (2004). 과학영재의 스트레스, 완벽성, 낙관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14(1), 47-64.
- 한기순 (2006). 과학영재교육원을 통해서 본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인류학연구*, 9(1), 123-151.
- 한기순 (2007).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프로그램 효과성의 총체적 진단과 분석. 한국과학재단.
- Argyle, M., & Crossland, J. (1987). The dimensions of positive emo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 127-137.
- Argyle, M., Martin, M., & Crossland, J. (1989). Happiness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and social encounters. In J.P. Forgas & J.M. Innes (Eds.), *Recent advances in social psycholog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p. 189-203). Amsterdam: North Holland, Elsevier Science.
- Getzels, J. W., & Jackson, P. W. (1962). *Creativity and intelligence: Explorations with gifted students*, Wiley, NY: Wiley.
- Kindlon, D. (2007). *Alpha girls*. New York: Rodale Press.
- Marsh H. W., & Hau, K. (2003). Big-Fish-Little-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American Psychologist*, 364-376.
- Mayer, J. & Salove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Moon, J. (1991). *Korean gifted and non-gifted children's attitudes toward family, teacher, friend and self as seen through sentence completion test*. Paper presented at the 9th World Conference on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Hague, August, 1991.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eligman, M.(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Knopf.
-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ilverman, L. (1993). *Counseling the gifted students*. New York: Love.
- Webb, J. T., Meckstroth, E. A., & Tolan, S. S. (1982). *Guiding the gifted child*. Columbus, OH: Ohio Psychology Publishing Company.
- Webb, J. T. (1993).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 A. Heller, F. J. Monks, and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for Research on Giftedness and Talent*," pp. 525-538. Oxford: Pergamon Press.

= Abstract =

The Research on the Gifted Children's Happiness

Ki-Soon Han

University of Incheon

Young-Mi Kim

University of Inche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gifted children's happiness, such as happiness index, optimis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education happiness.

For the study, 201 gifted students who were currently enrolled in gifted education centers, 124 potentially gifted students who were nominated by teachers for their scientific interests and high performances, and 241 general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the gifted and the potentially gifted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emoti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happiness compared to the general stud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ifted and the potentially gifted in the diverse aspects of happiness. Interestingly,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giftedness was found. Girls were happier when they were identified as the gifted, compared to the boys. Variables related to the happiness were also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eer relationship and the family happiness we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that explained gifted children's happiness in general.

Key Words: The gifted, Potentially gifted students, Happiness, Optimism,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education happiness

1차 원고접수: 2008년 11월 18일
수정원고접수: 2008년 12월 10일
최종게재결정: 2008년 12월 23일